

# “국방부가 나서라”

## 광주·대구·수원 3개 시 군공항 이전 촉구 “국가 존립 필요 국가사무 해당 헌재 판례”

광주와 대구, 수원 등 3개 시 군 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가 국방부의 조속한 군 공항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공항 이전사업 촉구를 위한 광주·대구·수원 시민단체 연합은 27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대책회의에는 양진석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장, 서흥명 통합신공항 대구 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장성근 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3개 시 시민단체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존립에 필요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이전 부지 선정단계까지는 국방부가 추진 주체라고 규정했다.

또 군 공항 이전 반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주민 실득과 지자체 간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연합 성명서를 채택했다.

9월 중에는 국방부 앞에서 3개 시 시민단체가 연대해 조속한 군 공항 이전 촉구 연합 결기대회를 열고 국방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3개 시 시민단체 대표단을 구성해 군 공항 이전의 시급성과 정부차원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방문하기로 했다.



군공항 이전사업 촉구를 위한 광주·대구·수원 시민단체 연합이 27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대책회의를 마치고 정부가 주도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연합은 9월 중 국방부 앞에서 연합 결기대회를 개최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최종 이전부지 선정은 지역 주민 투표로 결정하고 군 공항 이전 계획에 관한 정보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현 군 공항이 위치한 인근 지역 주민도 알권리가 있는 만큼 이전 후보지에서 설명회 개최가 어렵다면 현 군 공항 소재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토록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관계자는 “3개 시 시민단체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각 지자체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된 사항에 대해 연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국회에서 ‘구례 장터’ 성황리 개최

### 구례농민회와 공동주최, 구례 특산물 소비촉진에 기여

국회에서 구례 특산물 판매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인화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양·곡성·구례)은 최근 국회 도서관 앞마당에서 구례농민회와 공동으로, 여야 국회의원과 구례 군 관계자 및 재경 구례 향우회 및 수도권 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청정구례 농특산물 홍보 및 특산물’ (이하 ‘구례 장터’)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4회째를 맞는 ‘구례 장터’는 구례군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수유, 표고버섯, 산나물, 배, 곶감, 꿀, 수제 소세지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소개하기 위한 전시회, 구례특산물 전시회, 현장 판매 행사로 구성되었다.

행사는 유성열 대안정치연대 대표, 전장배 의원, 윤영일 의원, 최경환 의원, 장정숙 의원, 최다호 의원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장수 농

협은행 부은행장, 김순호 구례군수, 김송식 구례군의회 의장, 박형문 재경구례향우회장, 윤병술 구례군농민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구례 특산물의 홍보와 소비촉진에 힘을 보탰다.

장터를 주최한 정인화 의원은 “식문화의 변화에 따른 농산물 소비위축으로 우리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례의 우수한 특산물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광양·곡성·구례의 발전과 고통받는 농업인을 돕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구례군 농민회 직거래장터 유통협의회는 정인화 의원에 대해 ‘구례군민의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다른 애정을 보내준 점’에 대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광양·김순호 기자

## 전남 일본계 벼 품종 재배면적 0.9% 불과

전남에서 재배하는 쌀 중 일본계 벼 품종은 면적이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도내 벼 재배면적 14만2000ha 중 일본계 벼 품종 재배면적은 1291ha로 0.9%에 불과했다.

일본계 벼 품종은 히토메보리가 1047.3ha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시카리 242.7ha, 추청 1ha 등이다. 히토메보리 기준 지역별 재배면적을 보면 해남이 800ha로 가장 많았다. 함평(222.0ha)·고흥(14.0ha)·광양(11.3ha) 등이 뒤를 이었다.

고시카리의 지역별 재배면적은 순천 166.0ha, 고흥 15ha, 강진 5ha, 무안 3.0ha 등이다. 추청은 함평이 1ha로 유일했다.

경기도내 벼 재배면적 7만8000ha 중 63%가 외래품종이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남의 벼 외래품종 비율은 극히 낮지만 이마저도 도내 개발 품종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 전남의 주요 벼 품종은 신동진벼 5만1300.3ha(35.8%)를 비롯 일미벼 5894.0ha(4.1%), 전남 3호 4006.3ha(2.8%), 동진찰벼 4055.5ha(2.8%) 등이다.

## “스마트 해양교통안전센터 목포 건립 확정”

### 박지원 의원, 100억 투입 북항 인근에 2022년 완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해 온 ‘스마트 해양교통안전센터’의 목포 건립이 확정돼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목포)은 27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해 온 ‘스마트 해양교통안전센터’의 목포 건립이 확정됐다”며 “오늘 기재부 심의에서 실제 6억6000만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목포 북항 인근 3000평 부지에 건립될 예정인 ‘스마트 해양교통안전센터’는 고품질의 선박검사 안전점검

과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은 물론 유관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중소 해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안전센터가 건립되면 서해권 종합비상훈련장(선원교육원, 내년 11월 완공)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내 목포가 서남해권 해상안전훈련 선원교육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김종식 목포시장과 협력해 차질 없는 센터 건립은 물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서남권지부의 목포유치 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동구, 걷기지도자 양성교육 참여자 모집

광주 동구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9월 20일까지 ‘걷기지도자 2급 양성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 지도하에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16시간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에게는 대한걷기협회에서 발급하는 걷기지도자 2급 자격증이 주어진다. 교육비는 무료이고, 자격증 발급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동구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향후 걷기 자조모임 결성 등 지역 걷기지도자로 활동의지가 높은 주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 서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광주 서구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는 9월 예정되어 있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보조금 사업 및 신규 행사성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것

조례에 따라 서구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시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등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특히 교수, 회계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및 보조사업자 재원분담 사항, 보조사업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 남구, 추석 앞두고 불법 광고물 정비

광주 남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주요 도로 및 다중이용시설, 보행로 주변의 불법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을 일제 정비한다.

특히 차량 소통 및 보행 불편에 장애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먼저 지난 2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3주간에 걸쳐 관내 주요 도로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가 진행 된다.

남구는 2개 정비반을 편성,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 북구, 청년 종합지원체계 구축 박차

광주 북구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북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이 관내 한 카페에서 지역의 청년단체 관계자와 청년활동가 등을 만나 북구의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다.

문 구청장은 이날 자리에서 북구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과 4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북구는 오는 2020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중흥동에 위치한 지상 3층 규모의 청년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다.

청년문화센터는 ‘청년네트워크 회의’·청년정책 정보 안내·청년활동 청년상담소 운영·창업아카데미·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매장 등 취·창업 및 각종 청년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광산구, 개학·추석 대비 학교·시설 안전점검

광주 광산구가 초·중·고 개학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87개 학교와 19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안전점검은 크게 두 방면에서 진행된다. 먼저, 다음달 말까지 광산구 학교주변에서 교통·유해환경·식품 안전과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점검·단속한다.

아울러 이달 30일까지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추석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안전을 점검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학과 추석을 앞두고 시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전사고 없는 광산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안전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한 정 승 인 공 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년 단 627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주 경 순 (320320-2636725)  
최 후 주 소 : 전남 고흥군 고흥읍 흥교길 26  
등록기준지 :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98번지

위 망 주경순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할.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8월 28일

공 고 인 : 신해령, 신향령, 신향영, 신준식.  
주 소 : 전남 고흥군 고흥읍 두원로 19, 2동 308호(미래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8월 22일  
공고기간 : 2019. 8. 28 ~ 2019. 10. 28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범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사적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성실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애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예로써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전라남도노사공동조정제정설립위원회